

故최희석 경비 노동자 3주기, 공동주택 종사자 갑질 근절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

- 故최희석 경비 노동자 3주기 맞아 국회토론회 개최
- 지난 3월 14일에도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 노동자 사망 사건 발생
- 동료의 억울함 호소하다 부당 해고된 이길재 경비대장 증언 “참담하다”

2023년 5월 10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국회의원 박주민)와 국회의원 박상혁,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전국민주일반노조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공동주택 종사자 갑질 근절 개선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3월 14일 경비 노동자가 관리사무소장 갑질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5월 10일 故최희석 경비 노동자가 입주민의 폭언, 폭행, 협박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지 채 3년이 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그간 국회는 「공동주택관리법」,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종사자의 부당 간섭과 직장 내 괴롭힘을 막고자 했으나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과 단기근로계약 문제 해소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토론회는 故최희석·박범석 경비 노동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박주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 고 밝혔고, 박상

혁 의원은 “법안 개정 등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갑을 관계가 존재한다. 안타까운 마음 잊지 않고 국회에서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발제에 앞서 현장 증언에 나선 이길재 전 선경아파트 경비대장은 “함께 일했던 동료 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또한 “가해자는 멀쩡하고 피해자만 쫓겨나는 기막힌 현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 이상 경비원이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달라” 고 호소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발제에서 단기근로계약과 갑질의 순환구조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방지하기 어려운 법적 허점을 짚었다. 「공동주택관리법」, 「근로기준법」 보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비 노동자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 구성 주체들이 참석하여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 눈길을 끌었다. 좌장은 이남신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이 맡았다.

(사)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인건비 절감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짚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팀장은 관리소장 역시 희생당할 수 있는 종사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밝히며, 다각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의현 전국민주일반노조 공동주택분과 조직위원장은 故박범석 경비 노동자의 사망 경위를 자세하게 밝히며, 입대위·지자체·용역업체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관련 법령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며 단기근로계약과 직장 내 괴롭힘,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짚었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도 참석했는데 “갑질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 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겠다” 고 말했다.

/끝/

[첨부] 사진

